“설 전에 이름 알려라” 출마선언 봇물

광주 구청장 후보들 연휴기간 지지도 높이고 조직 다지기 유리

관료들 대거 출사표…남·북·광산구 현역 출마 없어 각축 예고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입후보자들이 잇따라 출마 기자회견을 계획하는 등 기초단체장 선거 열기도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현 구청장의 3선 연임 제한과 광주시장 출마 등으로 북·남·광산구가 현역 출마가 없는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 틈을 노린 입지자들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구청장 선거를 준비하는 현역 광역의회 의원들도 오는 3월 임시회 일정이 마무리되면 의원직 사퇴 등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보여 기초단체 선거전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23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장성수 전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이 오는 2월 1일 광산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이어 같은 달 5일에는 문인 전 광주시 행정부시장이 북구청장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

최근 일부 광주시장 출마 예정자들이 출마를 공식화하기도 했지만, 이 지역에서 기초단체장 입후보자의 출마기자회견은 사실상 이들이 처음이다.

이들이 서둘러 출마 행보를 서두르는 것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월 14일 이전에 출마선언을 한 뒤 추석 연휴에 지역구를 돌며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2월 초·중순께 현역 광역의회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마선언이 자유로운 후보자들의 출마선언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구청장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광주시의원들은 의정 차질을 우려해 출마 기자회견을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오는 3월 2일 전후에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현재 광주 동구청장의 선거의 경우 국민의당에서는 김성환 현 청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임택 광주시의원과 오형근 성형외과 원장, 양혜령 전 광주시의원, 홍기월 동구의원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또 서구청장은 민주당 소속의 임우진 현 청장이 재선을 노리고, 김보현·김영남 시의원이 출마를 준비중이다. 남구청장은 민주당 후보군으로 김병내 현 정부 청와대 행정관, 김영집 지역미래연구원장, 김용집 시의원, 김정기 남구의회 의장, 이철원 변호사, 성현출 남구문화원장, 임형진 전 광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조성철 새벗들 상임대표 등이 있으며, 국민의당에서는 박춘수·유정심 시의원과 김만곤 세무사 등이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다.

북구청장 선거에는 민주당에서 김동찬·문상필·조오섭 시의원과 김상훈 북구의회 의장이, 이에 맞서 국민의당에서는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곽복률 전 국민의당 사무처장, 진선기 전 광주시의회 부의장 등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광산구청장은 민주당에서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광산갑 지역위원장,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 의장, 김삼호 전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영록 광주지방세무사회장, 임한필 광산문화경제연구소 소장, 윤난실 전 광산구공인활동지원센터장, 강위원 투게더광산나눔재단 상임이사 등이 출마 예정자다.

국민의당에서는 이정현·김민종 광주시의원이 출마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민주당 구청장 출마예정자들은 23일 모여 “광주시의회 전체 22명의 시의원 중 구청장 출마예상자는 많게는 12명에 이르기 때문에 동반 의원직 사퇴할 경우 의정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3월 중 임시회(3월 5일~12일)가 끝나는 무렵에 사퇴를 하자”고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현역 광주시의원 구청장 출마자들의 출마 선언은 2월말께와 3월 중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문대통령 “당정청 혼연일체로 개혁 완수…국민의당과 관계개선”

靑, 與 지도부 초청 오찬

여야 원내대표 회동 주문

웃음꽃 핀 靑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낮 청와대 인왕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를 초청해 오찬을 하기 위해 우원식 원내대표(오른쪽), 임종석 비서실장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와 오찬을 하면서 여소야대 국면에서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찬회동에서 “행여나 내가 국민의당과 감정이 있을 것이다, 안 좋을 것이다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다”며 “국민의당과 좋게 관계를 맺고, 국회에서 좋은 활동을 할 수 있기를 적극적으로 바란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배석자들이 전했다.

이는 앞서 이훈 원내부대표가 “국민의당과 필요할 때만 찾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평상시에 관계를 넓혀야 하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것 같다”고 말한 데 대한 답변으로 알려졌다.

당 일각에선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통합과 이에 따른 호남중진 중심의 신당 추진 움직임 등 지방선거와 맞물려 복잡하게 전개되는 정계개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즉 안철수·유승민 대표가 주축이 된 통합신당뿐 아니라 중도통합에 반대한 호남중진 중심의 신당과 지속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종의 물꼬를 터 준 것이란 해석이다.

또 문 대통령은 “국회와 관계가 잘 되기를 늘 생각하고, 국민의당에 대해서도 전혀 (감정이 나쁘다거나) 그렇지 않다”며 “협력을 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일이 있으면, 내가 해야하는 역할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날 “평창올림픽 성공과 2월 국회, 개헌 등 큰일을 앞둬서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당정청이 혼연일체가 돼야 한다. 민심 위로를 잘하고 역사적 과제 앞에서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고 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모두 고생이 많지만, 원내지도부가 비상한 시국에 국회를 운영하느라 고생이 많다”며 “여소야대에 여러 야당이 있을 뿐 아니라 정책적 입장차가 커서 조율에 수고가 많다”고 격려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원식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원내대표 교체도 있었고 2월 국회를 앞둔 만큼 청와대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진행했으면 한다”고 건의하자 배석한 청와대 참모들에게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KBS 이사회가 전날 의결한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재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오늘 고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전자결재로 재가했다”며 “고 사장은 24일 오전 0시부로 KBS 사장직에서 해임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 “MB 구속수사 받아야”

“대북공작금으로 野 정치인 사찰…한국당 색깔론 자제를”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이명박(MB) 정부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유용 의혹과 댓글사건을 고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자유한국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은 나아가 MB 국정원이 대북공작금을 야당 정치인을 불법 사찰하는데 썼다는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평창동계올림픽을 색깔론으로 물들이려는 한국당의 공세에는 “찬물을 끼얹지 말라”며 “북한의 참가로 평화올림픽과 한반도 긴장완화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고 적극 반박했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당시 최종흡 전 국정원 3차장이 대북공작국의 특수활동비를 활용, 방첩국을 지휘해 당시 야당 정치인과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 공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국정원 업무 관행상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전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행위가 하나 더 늘었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명품 구입에 사용했다고 주장해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을 잘 아는 분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재차 확인한 뒤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언론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일부 언론 등이) 이명박 정부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에 대한 정치 보복과 엮어서 망신주기 폭로와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가는 것은 대단히 잘못”이라면서 ″김 전 실장의 진술 등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추가 제보가 있지만, 일단 검찰 수사 등 추이를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공작의 핵심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 모 씨가 위증했음을 검찰에 자백했다고 한다”면서 “윗선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비롯해 이명박 정권 시절에 이뤄진 불법행위에 대한 사법적 단죄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과 북한 예술단 사전 점검단의 방남을 고리로 연일 대여(對與) 비판 발언을 쏟아내는 데 대해서도 “과연 한국당이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기원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반격에 나섰다.

김영호 의원은 이날 원내회의에서 “한국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색깔론으로 도배하고 있다”면서 “모든 외신이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한국당이 (앞장서) 평창올림픽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은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제자리 맴도는 헌정특위

국민투표법 개정 놓고 설전…오늘 다시 전체회의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활동 계획을 논의했지만 여야간 기(氣)싸움만 벌이고 24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고 향후 일정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헌정특위 전체회의에는 기존 정치개혁특위에서 검토보고됐던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 정당법 일부 개정안,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 등 법률안 142건 및 청원 4건이 상정됐다. 하지만 특위 진행 방식 등을 둘러싼 여야간 의견차로서 대체토론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면서 법정시한을 넘긴 선거구와 시도별 기초의원 정수 확정의 건만 정치개혁소위에 회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투표법 개정을 둘러싸고 위원들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호 의원이 대체 토론에서 “자칫하면 개헌에 관한 국민 투표가 불가능하거나 국민 투표가 실시되더라고 무효가 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관련 법률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하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헌법개정을 위해 조속히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면 졸속입법이 될 수 있다”고 반박하면 서다.

국민투표법(14조1항)은 주민등록이나 국내 거소 신고가 안 된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데,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와 개헌투표 동시실시를 주장하는 민주당 측은 조속한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했고 연말 개헌투표 방침을 정한 한국당 측은 이를 막아서며 반발한 것이다.

헌정특위는 24일에도 전체회의를 열고 헌법개정 소위의 향후 논의 일정을 조율할 예정이다. /김형호기자khh@

2018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편입생모집

학 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인문	신 학 과	26
	국제한국어교원학과	2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10
사범	유아교육과	2
예능	음 악 학 과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7
	실용음악학과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10

※신학과는 **군종사관후보생**(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국제한국어교원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사회복지상담학과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 6(토) ~ 1. 9(화)
- 전 형 일 : 2018. 1. 16(화)

편 입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학과	모집인원: 정원내 일반편입(3학년)	모집인원: 정원외 학사편입(3학년)	모집인원: 정원외 유치원교사 양성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편입학(3학년)
인문	신 학 과	○	○	
	국제한국어교원학과	○		
사회	사회복지상담학과	○		
사범	유아교육과	○	○	○
예능	음 악 학 과	○		
	실용음악학과	○		

※ 음악학과 전공▶ 피아노, 성악, 관·현악[타악, 클래식기타 포함], 오르간, 작곡, 교회음악
※ 실용음악학과 전공▶ 드럼, 기타, 재즈피아노, 보컬, 베이스, 색소폰, 작곡, 미디[레코딩], 싱어송라이터 등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7(수)
- 전형일 : 2018. 1. 23(화)

신학대학원 편입

▶지원자격 및 모집인원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신학 관련 대학원에서 2학기 이상 수료한 자로 아래 세부 지원 자격에 해당하는 자 (단,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신학연구(학)과(M.A.T.) 재학, 수료, 졸업자 포함)

모집학년	모집인원	지원자격
2학년	○명 (주·야)	3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2학기 이상 수료
3학년	○명 (주·야)	60학점이상 취득자로서 4학기 이상 수료

▶전형일정
- 원서접수 : 2018. 1. 8(월) ~ 1. 17(수)
  ※서류심사 관계로 제출서류는 기간 내에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해야 한다.
- 전 형 일 : 2018. 1. 23(화) 오후 2시 30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대 학 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 전형일정
① 원서접수 : 2018. 1. 26(금) ~ 2. 2(금)
② 전 형 일 ※모집학과 및 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대 학 원	과정	모 집 학 과	모집인원	전 형 일 시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	2018. 2. 6(화) 오후 2:30
일반대학원	박사	유아교육학과(D.Ed.)	○	2018. 2. 6(화) 오후 2:40
	석사	신학과(Th.M.)	○○	2018. 2. 6(화) 오전 9:40
		유아교육학과(M.Ed.)	○	2018. 2. 6(화) 오후 2:40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	
		평생교육학과(M.Ed.)	○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	
음악대학원	석사	음악학과(M.A.)	○	
		실용음악학과(M.A.)	○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